‘의약품 허위표시·과대광고’는 치료제 없나?

동화약품·동국제약·유한양행 등 제약사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3년간 34건 적발

최근 3년간 의약품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 약사법 위반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34건 가운데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가 21건,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가 13건이다. 이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4건이었다.

동화약품의 후시딘연고는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대표 상처치료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2014년 과대광고로 인한 광고 업무정지 2개월15일을 대신한 과징금 1800만원이 부과됐다. 한독약품의 훼스탈플러스도 ‘대한민국 대표 소화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과대광고를 이유로 올해 8월 ‘광고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광고에서 ‘대표’라는 문구는 약사법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 제3항 관련 별표. 7의 나 항목에 위반된다. 이를 어기면 해당품목의 광고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동국제약의 인사돌플러스는 2015년 광고에서 임상시험의 자료 가운데 일부만 발췌해 실제 수행된 임상연구 목적과 다르게 제품의 효능을 부각시키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광고 업무정지 1개월과 같은 7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녹십자엠에스의 에취디졸-비씨액과 에취디졸-비씨지액, 케이바이카트761은 포장에 녹십자엠에스를 기재·표시하지 않고, 한국갬브로솔루션으로 기재·표시해 제조·판매한 것이 적발돼 판매 업무정지 3개월과 같은 과징금 4455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신풍제약의 록스펜씨알정은 의약품 용기에 표시한 유효기간을 허가받은 사항인 24개월과 다르게 36개월로 기재해 판매하다가 판매 업무정지 3개월과 같은 과징금 1485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올해는 (주)유한양행이 알마겔에프현탁액(알마게이트)의 과대광고로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주)한국로슈의 마도파확산정125와 한림제약(주)의 슐리딘젤리(농글리세린)는 각각 허위표시로 판매 업무정지 1개월15일과 광고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남인순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성분이 변해 콩팥에 손상을 입히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데, 유효기간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해야한다. 과대광고와 관련해 전문의약품은 광고규제가 필요함과 동시에 대중을 위한 홍보의 유연성도 같이 필요해 제약사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합병증 초래’ 전립선비대증 치료 빠를수록 좋아요

방치하면 혈뇨·신우염·방광염·허리통증 등 우려

체내의 다양한 노폐물이 수용액으로 방광에 저장되어 있다가 요도를 거쳐 체외로 배출되는 현상이 소변이다. 병원에서는 소변의 색과 맑은 정도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한다. 배설물 가운데 독성이 가장 강력하다. 장기간 소변을 참으면 요독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혹시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는다면 전립선비대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전립선은 밤톨이나 호두를 닮은 남성의 생식기관으로 중앙에 구멍이 있고, 이를 통해 사정관과 요도가 통과하는 구조다. 전립선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면 사정관과 요도를 압박해 소변배출에 장애가 생긴다.

이런 상태를 전립선비대증이라 한다. 전립선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남성 호르몬의 영향 탓에 조금씩 커지는 경향이 있다. 전립선비대증의 발병률은 노년기가 가까워질수록 높아진다. 60대 남자들의 60%, 80대 남자들의 90%가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증상을 호소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전립선비대증 원인은 정상기능이었던 고환의 노화다. 고환은 전립선과 함께 남성의 주된 생식기관 중 하나로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에 의존하는 기관이다.

고환의 노화로 남성호르몬이 생성되지 않으면 전립선 역시 위축되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전립선비대증의 증상으로 약뇨, 복압배뇨, 배뇨지연 등의 폐색성 증상, 빈뇨, 야간뇨, 절박뇨, 요실금 등의 자극성 증상이 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혈뇨, 신우염, 방광염, 결석생성, 허리통증 등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내버려둘수록 위험해지는 전립선비대증, 한방치료가 효과 있어

혹시 자신의 연령이 중년 이상이며 소변 때문에 밤에 자다가 두 번 이상 일어나 오줌을 누는 빈뇨증상이나, 소변을 본 뒤에도 잔뇨감이 나타나면 전립선비대증이 아닌지 병원을 방문해 정밀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전립선비대증으로 확인되었다면,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남성호르몬 분비의 이상이 전립선비대증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신체의 양기와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한약을 통한 한방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다. 원기는 사람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근본이 되는 기운을 말한다. 양기는 인체 내에서 기화를 주도하는 기운으로 정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운을 환약을 복용해 활성화함으로써 신정과 골수를 보충해 신체기능을 높이고 배뇨장애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지스한의원 광주점 서진우 원장

‘여성이 알고 싶은 약 이야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책자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청소년기부터 가임기, 임신, 출산, 육아 및 갱년기에 이르기까지 여성 생애에서 꼭 필요한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여성이 알고 싶은 약 이야기’소책자(사진)를 마련해 전국 보건소, 산부인과 등에 배포한다.

여성 입장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개발하기 위해 가임기, 다문화 가정 여성 및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해 필요한 정보를 발굴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기부터 임신, 육아, 갱년기에 이르기 까지 여성 생애주기별 안전하고 올바르면서도 건강한 약 복용에 관한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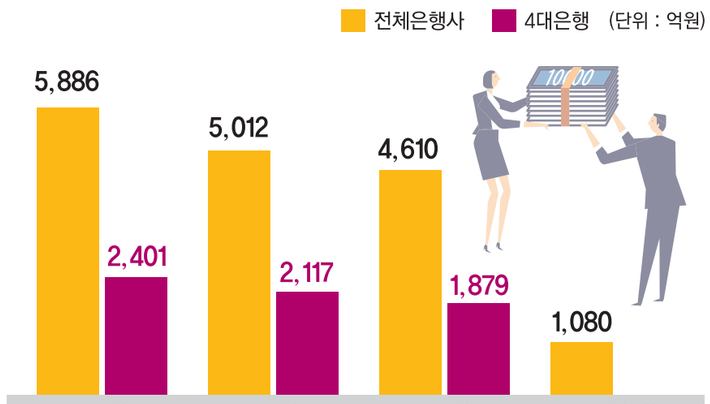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소책자와 리플릿 발간을 통해 청소년, 임산부 및 갱년기 여성 등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필요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언론홍보자료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알림마당→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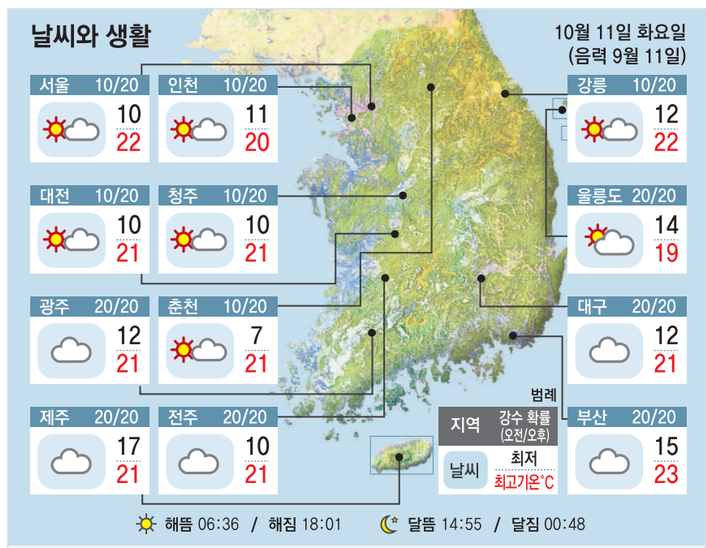
데이터로 보는 경제 전체은행(17개)/4대은행(신한·우리·하나·국민) 사회공헌지출 총액

금융감독원의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예산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886억원에서 2014년 5012억원, 지난해에는 4610억원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사회공헌지출이 전년대비 6.8%(1872억원)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날씨와 생활

10월 11일 화요일 (음력 9월 11일)



해뜸 06:36 / 해짐 18:01 달뜸 14:55 / 달짐 00:48

산 날씨

북한산		10/21
설악산		11/22
오대산		5/19
계룡산		9/22
속리산		7/20
소백산		8/20
팔공산		12/21
지리산		9/21
덕유산		8/21
내장산		10/21
한라산		10/14

바다 날씨

인천송도		11/20
제부도		10/20
경포대		12/22
속초		12/22
대천		10/21
안면도 꽃지		10/20
변산반도		10/20
거문도		15/20
칠포		13/22
해운대		15/23
제주도		17/21

미세 먼지

서울	25	좋음
부산	26	좋음
대구	24	좋음
인천	32	보통
광주	24	좋음
대전	30	보통
울산	26	좋음
경기	31	보통
강원	24	좋음
충북	28	좋음
경남	26	좋음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12일(수) 서울경기 10/20 영동 12/17 충청 11/20 호남 12/23 영남 16/24 제주 17/21

13일(목) 서울경기 11/21 영동 10/18 충청 11/21 호남 12/23 영남 16/23 제주 16/21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언	대표전화	02 2020 0114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5
편집인	이성춘	편집부	02 2020 1032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편집국장	연제호	스포츠1부	02 2020 1041	산업경제부	02 2020 1060
광고국장	이승욱	스포츠2부	02 2020 1059	사진부	02 2020 1069
인쇄	동아일보사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sol@donga.com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